

농업·농촌분야 진로체험 확대

전북자치도교육청, 농진청과 협약... 진로교육·체험 적극 협력기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2일 농업과학관에서 농촌진흥청과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학생들의 진로체험과 농업·농촌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2일 농업과학관에서 농촌진흥청과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운영팀 교육국장 김병석 연구정책국장 등이 참석해 진로체험 및 농업분야 인재 양성에 관한 업무 협조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농업·농촌 분야와 관련된 초·중·고교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프로그램 안내, 자문 등의 업무를 맡기로 했다.

김병석 국장은 "두 기관의 협력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진로 교육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진로체험 기회를 확대해 궁극적으로 농업·농촌의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운영팀 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농업·농촌 분야 진로탐색의 기회를 갖고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면서 "양 기관이 힘을 합쳐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단계별로 확장에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농촌 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및 농업인의 지도·양성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수목원,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를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다.

/장은성 기자

라면 기부로 고립청년 돕는다

전북대, '전주함께라면 청년행복자치도' 캠페인 20일 교직원들 대상 라면 기부 받아 청년들 지원

전북대학교 구성원들이 전주시 지역사회복지관들과 협력해 고립 청년 지원을 위한 라면 기부 캠페인인 '전주함께라면 청년행복자치도'를 전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9월 21일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 희망 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전주함께라면'은 관내 6개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공유공간인 라면카페 사업으로, 사회적 단절과 소용 부족으로 고립된 이웃들이 잠시나마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이는 '누구나 먹고 가고, 누구나 놓고 가는' 나눔의 선순환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다. 전북대가 추진하는 '전주함께라면 청년행복자치도' 캠페인은 대학에서는 첫 번째로 진행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

이에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BK21 지역혁신을 위한 미래복지인력 양성사업단은 오는 20일 건지광장 문화회에서 대학 교직원과 지역민 등을 대상으로 라면 기부를 받는 나눔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라면 기부를 받는다. 오후 2시에는 '전주함께라면' 협약식과 함께 고립 청년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논의된다.

한편 교수 및 교직원들은 행사 당일 라면을 직접 후원하거나, 라면 후원을 기부할 수 있다. 라면의 종류와 수량은 제한 없으며, 후원금으로는 예를 들어 라면 1번 들 5,000원, 1상자 당 2만원의 기부가 가능하다. 이날 후원된 라면은 1,000여명의 청년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당일 캠페인에서는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고, 미션 완료 후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양오봉 총장은 "전북대학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로 우리 청년들의 장밋빛 미래를 응원해줄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학교업무 경감 ↓ 행정처리 효율성 ↑

전북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제증명 온라인 발급 서비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교육공무직원 제증명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에는 근무하는 학교 및 기관에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제증명 발급을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것이다.

이는 직원들의 민원행정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처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편리한 접근성·신속한 발급·정확한 정보제공 등이 목적이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당초 12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9월로 앞당겼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 제증명 발급 온라인 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민원서비스 업무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지속적인 서비스 점검을 통해 안정적으로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학교장 대상

교육활동 보호 설명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2일 전주학생교육문화관 공연장에서 교육활동 보호 및 민원대응 강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내 각급 학교장과 유치원장 9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는 학교장의 교육활동 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 대응 역량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날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교원지위법 시행 후 반영된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교원들의 교육활동 침해 대응을 위해 14개 교육지원청에 지역교육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업무 담당자 19명을 배치했다.

특히 민원처리를 학교장이 책임지는 민원 응대 체계를 공고히 하도록 안내했다.

희망학교에는 교원안심번호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상담실 100개를 구축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에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서 제출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도 지원하고 있으며, 교권전담변호사 2명을 채용해 교육활동 침해 법률 지원도 강화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취임 후 2년 동안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추진하며 학교 현장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졌다"며 "이는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교장선생님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 교원, 학부모, 학생이 상호 존중하며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12일 고창 동리국악당에서 지역 학부모·교직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감과 함께하는 공감토크'가 열렸다.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교육감과 함께하는 공감토크' 성료

서거석 교육감, 고창서 마지막 공감토크... 학부모·교직원과 교육현안 주제 소통

서거석 교육감이 14개 시·군을 순회하며 교직원·학부모들과 교육 현안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공감토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12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에 따르면 이날 고창 동리국악당에서 지역 학부모·교직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감과 함께하는 공감토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서 교육감은 '수능 1등급 올리기 80일 프로젝트', '개인별 맞춤형 학습지원' 등 학력 신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소개하고, 전

북교육 대전환을 위한 공교육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 함께 한 학부모와 교직원들은 △소규모학교 활성화 방안 △학력신장 △전북형 늘봄학교 확대 △SI 기반 미래교실 구축 △IB교육 등에 관심을 보였다.

이후 서 교육감은 고창교육지원청과 고창중학교를 차례로 방문해 교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로써 지난 6월 11일 무주를 방문하면서 시작한 공감토크가 막을 내렸다. 공감토크는 각 지역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교육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전북교육청은 공감토크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향후 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10대 핵심과제 등 전북교육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보완점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 공감토크를 마련했다"며 "지역에서 나온 생생한 목소리를 토대로 현안이 요구하는 교육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첨단기술 창업기업 육성 '맞손'

전북대 창업보육센터, KIST와 기업 지원체계 구축 협약

전북대학교 창업보육센터(센터장 국경수)는 지난 11일 창업지원단에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기술사업전략본부장 임환)과 지역산업 발전 및 기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국경수 센터장과 임환 본부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KIST의 공동 기술 활용, 인재 양성, 기술 창업 육성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했다.

한편 이번 협약은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기업 육성 환경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경수 센터장은 "지역 첨단기술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 할 우수 기업을 키워내는 창업보육센터의 본연의 역할에 KIST와의 협력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국경수 센터장은 "지역 첨단기술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 할 우수 기업을 키워내는 창업보육센터의 본연의 역할에 KIST와의 협력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학교는 지난 11일 본관 접견실에서 전북국제협력진흥원과 글로벌 인재 양성 및 지역사회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외국인 유학생 교류·지역사회 국제화 역량 향상

전주대, 전북국제협력진흥원과 협약... 국제화 진흥사업 등 협력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11일 본관 접견실에서 전북국제협력진흥원(원장 김대식)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박진배 총장과 김대식 원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 교류와 지역 사회의 국제화 역량 향상을 위한 상호협력력을 다짐했다.

협약 내용은 △전북 국제화 진흥사업 △외국인 정착 지원 사업 △해외 진출 지원 사업 등이 있다.

박진배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과 세계를 아우르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인재 양성과 지역 상생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약 후 김대식 원장이 호텔경영학과 유학생 및 재학생 대상 특강을 펼쳤다.

'국제 마인드 함양 및 해외 취업 역량 강화'라는 주제로 열린 특강에서 김대식 원장은 오랜 기간 수행한 국제적 활동과 업무 경험을 생생하게 들려줌으로써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장은성 기자

호텔 경영 인턴십 기회 제공·산학 연구개발 공동 협력

전주대, HUSS와 업무협약

전주대학교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단은 12일 진리관에서 일본 AB이코모(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주대 이용욱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단장과 일본 AB이코모(주) 칸다 요시아키 부분부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학생 대상 인턴십 제도 구축 및 기회 제공에 따른 상호 협력 △산업·학술 자원의 공유 및 공동 개발 연구에 따른 상호 협력 △융합인재 대상 산업 지식 및 기술 향상 목적 공동 훈련 계획 공동 구축 △졸업생 대상 호텔 경영 및 호스피탈리티 관련 분야 교육 기회 제공 등 융합인재 양성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용욱 사업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융합인재들에게 호텔 경영을 포함한 직무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산



전주대학교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단은 12일 진리관에서 일본 AB이코모(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학 공동 연구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훈련 과정 구축을 목표로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주전대, 가발패션 특강

전주전대대학 커풀링사업단(단장 조덕현)은 지난 11일 커풀링 참여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가발패션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웰니스와 K-뷰티의 융합을 통해 학생들에게 글로벌 뷰티 산업의 변화와 새로운 기술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에서 운영됐다.

이번 특강의 주제인 가발패션은 최근 K-뷰티 산업에서 주목받는 영역 중 하나로, 특히 웰니스와 연계된 헤어케어, 탈모예방, 스타일링 기술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특강을 통해 학생들은 가발의 종류, 소재 선택, 스타일링 기법 등 가발 패션의 기본적 개념 뿐만 아니라 최신 트렌드와 시장 흐름을 학습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실습 기회를 제공해 학생들이 K-뷰티 산업의 최신 흐름을 체감했다. /장은성 기자